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’ 3R 주요선수 코멘트**

**고지원, 노승희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7일(목) ~ 8월 10일(일) |
| 3 | 장 소 |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 [북(OUT) / 서(IN) 코스]  |
| 4 | 주 최 |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, 광동제약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86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1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윤이나, 방신실, 박현경, 이동은, 노승희, 고지우, 김민선7, 김민주, 이가영정윤지, 박혜준, 박보겸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, 고지원, 성유진강채연, 지한솔, 박성현, 임진영, 현세린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3라운드] 10시 ~ 16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고지원 3라운드 중간합계 18언더파 198타(66-66-66) 단독 1위 \*3R 종료시점 기준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09>

**Q. 3라운드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. 경기 흐름은 어땠나?**

날씨가 좋지 않아 걱정했지만,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. 3라운드 남은 네 홀이 까다로워서 ‘지키자’는 생각으로 플레이했고 잘 마무리했다. 최종라운드는 무조건 자신 있게 플레이하겠다.

**Q. 단독 선두에 올랐는데, 어땠나?**

크게 생각하지 않았다. 18홀은 변수가 많은 홀이어서 몇 타 차이가 나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. 두 타 차 선두라도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,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.

**Q. 오늘도 날씨 변수가 있는데 어떤 점에 집중할 예정인가?**

비와 바람이 함께 몰아치면 정신이 없다. 기술적인 부분보다 멘탈을 잘 유지하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아서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할 계획이다.

**Q. 체력적인 부분은?**

힘든 정도는 아니고 평소와 비슷하다.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잠을 많이 자면 회복하는데, 어제도 연습장에 가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서 컨디션이 좋다.

**Q. 2주 연속 챔피언조에서 경기하게 된 소감과 각오는?**

2주 연속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하게 돼 행복하다. 오늘도 즐겁게 치겠다.

**Q. 이번 대회에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?**

얻을 수 있는 건 다 얻고 싶지만, 하나만 꼽자면 경험이다.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평소에 존경하는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한다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.

**◈ 노승희 3라운드 중간합계 16언더파 200타(65-67-68) 단독 2위 \*3R 종료시점 기준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13>

**Q. 3라운드가 이틀에 걸쳐 진행됐는데, 컨디션 조절은 힘들지 않았나?**

어제는 일몰 시각까지 마지막으로 플레이했고, 오늘은 아침 일찍 골프장 문을 여는 첫 번째 선수로 플레이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다. 잠을 거의 못 자 피곤했지만,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침 경기에 임하니 3라운드 남은 홀에서는 다행히 버디를 잡아낼 수 있었다.

**Q. 계속되는 날씨 변화를 대처하는 방안은?**

우비를 입으면 비가 그치고, 벗으면 다시 비가 오는 식으로 날씨가 계속 변덕을 부리는데,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.

**Q.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각오는?**

버디가 많이 나오는 코스이므로 내 플레이에 집중하겠다. 그리고 선두권에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플레이해 더 많은 버디를 잡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